

바. 논술전형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붙임번호	1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 지리, 국어, 경제,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와 사상, 문학의 수용과 생산, 시장과 경제활동,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도시 집중, 환경 파괴 및 기후 변화, 자연의 물질 구성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① 두려움 및 대담함에 관련해서는 용기가 바로 중용이다. 대담함이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지나치고 대담함이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와 관련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고 동일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10은 많고 2는 적다면, 사물과 관련된 중용으로 6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된 중용은 이런 식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에게 10근의 음식물은 먹기에 많고 2근의 음식물은 적다고 해서, 운동을 지도하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6근의 음식물을 먹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6근의 음식물은 노련한 레슬링 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자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와 겪음이 중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곧장 악행과 결부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심(良心), 파렴치, 시기(猜忌), 그리고 행동의 경우에는 간통, 도둑질, 살인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와 비슷한 것들은, 그것들의 지나침과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자체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③ 탄소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4개이다. 원자가 전자가 1~3개, 5~7개인 다른 원소들은 최대 3개의 원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지만,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자 배치 덕분에 탄소는 다양한 원소와 결합하였다. 탄소는 오랫동안 필기구나 연료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로 거듭나고 있다. 연필심에 사용하는 흑연은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평면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 이 흑연의 한 층만 벗겨 내어 탄소 원자들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그래핀(Graphene)이라고 한다. 흑연과 그래핀은 모두 탄소로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핀은 유연성, 전기 전도성, 열전도성 등이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통신 기기, 태양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 기기, 군사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④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수요자는 상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있고, 공급자도 팔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팔 수 있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한다.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살 수 없고, 이는 시장에 공급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수요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사려고 경쟁한다.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정부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어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쟁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공포·불공평·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중략) 지금 릴리푸트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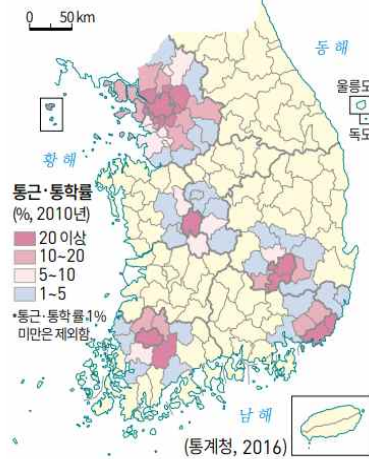
* 릴리푸트 :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의 이름

* 전제자 :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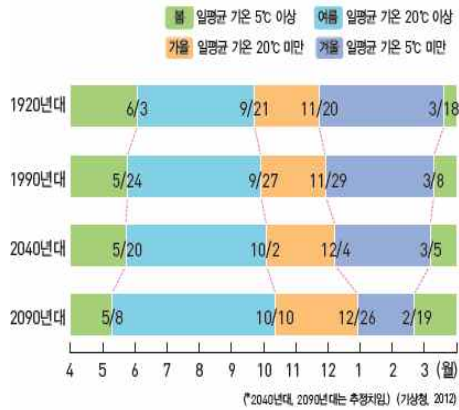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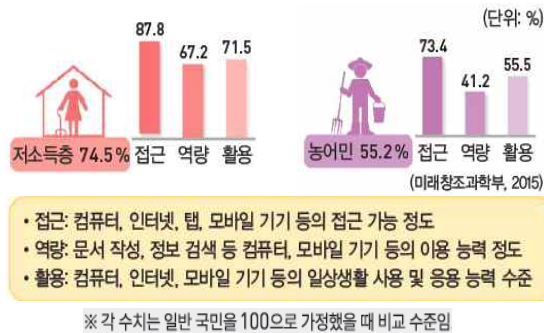
[그림 1] 대도시 주변의 통근·통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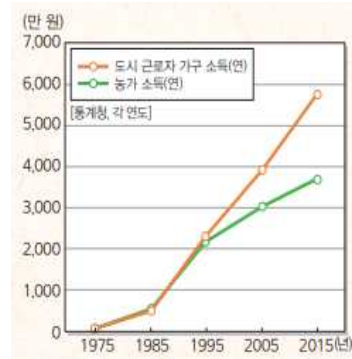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계절 길이 변화



[그림 3] 정보 격차 실태



[그림 4] 도시와 농촌의 소득 변화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중략)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